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7년 6월호

통권 제 172호



5월 교우소식

새 교우

♡ 장금녀, 가회동 11-15 ☎ 747-4882(이생림 집사 인도)

세례

☞ 세례자 - 강수경 이상언 강길녀 김삼임 김상성 김정한 김태분 배미정 유혜림 임상민 임성빈 정성라 조성필
☞ 입교자 - 변경인 이재영 최아라 김은주 정용연

결혼

♣ 박상현 양(박중한 집사·신선자 권사 1녀), 6월 2일(토) 낮 12시, 서울가든호텔 2층 무궁화홀

감사

☞ 윤명렬·김혜숙 집사, 6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백낙환 집사·박숙란장로, 13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조춘희 권사, 27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축하

♣ 박은영 집사·노면수 교우(박호균 집사·안부강 권사 딸), 8일(화) 특납.

환자

♣ 류효순 권사(정병수 집사·민경숙 권사 모친), 백병원 1209호.
♣ 강석문 교우(정태순 권사 장남), 고대구로병원 7399호.

이사

♡ 이희찬 집사·장세순 권사, 동대문구 장안3동 454-6 뉴화성빌라 301호.

출국

♠ 김남진 집사·변상방 권사, 자녀방문차 23일(수) 캐나다 출국.

2007년 어버이주일

2007년 효행상 시상이 어버이주일인 5월 13일 주일 2부예배시에 있었다. 올해 효행상 수상자는 이본원로장로와 송숙연권사 내외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게 되었다. 이본장로는 안동교회 장로이신 이해동장로와 김은조권사의 5남으로 부친인 이해동장로와 김은조 권사님을 사랑과 정성과 효를 다해 섬겼다.

부친인 이해동장로는 본 교회 장로로 시무하셨으며, 1965년 향년 75세로, 모친되시는 김은조 권사님은 1993년 향년 9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각 별세하셨다. 이본장로와 송숙연권사 내외는 양친 부모님을 잘 모신 효행을 실천하셨음은 물론 특별히 김은조 권사님이 95세까지 장수하시도록 극진히 봉양하였다.



예배 후에는 효도잔치가 있었는데 운상구장로택정원에서 점심식사 후에 있었다. 따끈한 커피를 마시며 미리 마련된 정원에 자리하고 앉아 국악민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경기민요 이수자인 김매환선생이 장고를 연주하고, 경기민요 이수자들이 함께 와서 춤과 노래를 하였다.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경복궁 타령 등을 불러 약 1시간동안 오랜만에 우리가락을 들으며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참석하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비타민C를 한 박스씩 준비하여 어버이날 기념 선물로 드렸다.



장로 선거

6일(주일) 2부예배 후에 장로 5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어 투표를 하였다. 이날 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284명에 2/3득표를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13일(주일) 2부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속개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였는데, 1차투

표의 다득표자순으로 총 10명의 배수공천자를 얻어서 투표에 들어갔다. 1차투표의 배수공천자는 득표순으로 이종서 이정배 김희진 계명의 백중관 윤순미 박영석 이순례 윤명렬 유혜순이다. 이종서 이종서 집사가 총투표수 314명의 2/3선인 210표 이상을 득표하여 장로로 피택되었다.

어버이날 특별 독거반찬배달

5월 10일 어버이날에 임하여 사회봉사국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특별음식을 배달하였다. 교회에서 준비한 김치 2kg과 육개장 2kg, 마늘쫑 새우볶음 500g씩을 배달하였고 이외에 특별히 음식을 기증해준 교우들은 다음과 같다.

과일(방울도마도, 참외, 바나나)을 박정음장로와 이화숙집사가 기증하였다. 케익을 양은선집사가 12개, 박정희집사가 10개, 정영란집사가 10개, 최소영집사가 10개씩을 만들어 기증하였다. 떡은 최문수권사가 여름 내의 40벌은 이순례권사가 기증하였다. 유명옥 집사가 사탕, 초코렛, 과자를 기증하였다.

늘푸른 교실

늘푸른교실에서는 4월 20일에 삼릉(공릉, 영릉, 홍릉) 등 파주 일대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아쿠아랜드에서 목욕, 두부마을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갔기 때문에 여유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온천에서 목욕까지도 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나들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찬조를 해주셨는데 이주영장로가 20만원, 윤석구집사가 10만원, 이화숙집사가 10만원, 최문수권사가 6만원, 박선숙집사가 5만원, 전도대에서 10만원을 찬조하였다.

또한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는 YWCA 핸드차임벨팀이 와서 연주를 해주었다. 약 10여명의 아마추어 단원들이 동요와 찬송가 등을 연주하였고, 연주에 맞추어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이어진 시간에는 안동선교원의 어린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재롱을 부리며 축하를 해 드렸다. 노래와 율동을 하였고, 직접 만들어온 100여개의



사탕목걸이를 한분씩 걸어드리며 기쁨을 나누기도 하였다.

구역연합 야외예배

올해 구역연합 야외예배는 원래 삼척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우천 관계로 공원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교회 친교실에서 진행하였다. 5월 18일 오전 11시에 전체가 모여서 계명의 권사의 사회와 황재금권사의 기도, 조명자집사의 헌금, 박병욱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 1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각 구역에서 준비한 푸짐한 점심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에는 발안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재훈목사를 초청하여 레크리에이션의 시간을 가졌다. 우천관계로 비록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실내에서도 준비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오히려 더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었다. 초청된 전재훈목사는 재미와 웃음과 신앙간증까지 곁들여서 두시간동안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고, 은혜의 시간이 되가지 하였다.



한샘야외예배

전날 비가 많이 내려 야외 활동이 적절하지 못하여 교회 친교실에서 22명의 회원과 안부장권사의 인도와 장문자 회장의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안부장 경조부장의 지도하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보물찾기를 하고 즐거운 점심시간을 가졌다. 즐거운 야외예배를 위해서 추옥희 집사가 떡을, 오군자권사가 과일, 점심밥은 최서섭집사가 해왔다. 더덕무침은 김방자집사가, 뽕어포와 김치는 장문자 회장이, 호두 멸치볶음, 오이소박이는 최명자총무가 해왔다. 원광자 집사는 손만두 10세트를 해왔다. 그리고 돼지불고기는 회비에서 구입하여 홍세진권사가 만들었다. 보물찾기 시상을 마치고 장흥, 송추계곡으로 드라이브에 나섰다가 장흥 솔향기 카페에서 계영의 권사가 20명에게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였다. 동요부르기 등 차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4시 10분경 교회로 와서 남은 과일을 나눠먹고 헤어졌다.

노년부 봄나들이

5월 10일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노년부가 청남대로 봄나들이를 갔다. 전날 밤까지 많은 비바람으로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다행히도 좋은 날씨라서 출발하기에 좋았다. 출발 전 박병욱 목사의 기도를 마치고 노년부 64명회원과 세 부목사를 모시고 버스 2대로 충북 청원군 소재 청남대(대통령 별장)로 향하였다. 고속도로를 지나 울창한 산속에 맑은 공기를 만끽하면서 11시 30분경 청남대 입구에 도착하였다. 미리 준비한 아리랑 음식점에서 시골쌈밥 된장찌개를 모두 맛있게 들고 난 후 청남대 진입로에 들어서니 백합나무 430여 그루의 가로수길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야외 음악당에 모여 김정수 부장의 예배인도, 강춘자권사의 기도, 안종혁목사의 말씀, 최창해목사의 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청남대는 대청호를 끼고 본관, 오각정, 양어장, 헬기장, 미니골프장, 그늘집, 선박전시장, 초가정, 산책로, 대통령 역사문화관 등으로 이루어진 아늑하고 아름다운 별장이다.

아름다운 반송, 각종 야생화와 조경수목이 너무도 보기 좋았고 싱그러운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관람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역사문화관을 둘러보며 청남대 관람을 마치고 3시 30분에 대청댐으로 출발하여 대청호전망대에 올라가 호수를 내려다보니 한포기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치였다. 4시에 아쉬움을 남기며 서울로 향하여 7시경에 헌법재판소 앞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노년부 봄나들이를 위하여 기도와 성원하여 주신 분들이 있다. 박숙란 장로, 조기현장로, 김용원 교육국장, 조춘희권사, 한누리, 한빛여전도회, 김정수권사, 김희진권사, 한인수권사, 최문수권사, 안부강권사, 한성자권사, 송혜자권사, 김방자집사, 김영자집사 등 총 1,100,000원의 찬조가 있었다. 또한 이순옥집사, 강정녀집사, 강제덕집사, 류현일권사, 김민수집사가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모든 일정이 은혜가운데 마치게 되었다.



큐티세미나

큐티세미나가 5월 20일 오후 3시에 예배당에서 있었다. 강사는 은누리교회 천만큐티운동 부분부장인 김철민목사가 강의를 해주었다. 큐티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교우들과 또한 큐티를 잘 알지 못하는 교우들이 함께 들으면서 영성훈련의 한 방법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교우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청년부와 교사들, 또한 노년층까지도 배우고, 실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교회에서는 큐티세미나를

두 차례 정도 더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나바다

4지회 여전도회 연합으로 아나바다 바자회가 27일 교회 옥외 주차장에서 열렸다. 교우들은 자신이 쓰던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왔고, 여전도회에서는 진열하고 판매를 하였다. 특별히 이번에는 많은 물품기증자들이 있었다.

이강룡장로 부인인 신난숙여사가 이불과 베개 등 작품 여러 점을 기증하였고, 인치명집사는 인형 2박스, 정용연교우는 인도 울금 10박스를 기증하였다. 조명자집사가 핸드백과 가방 7박스를, 김정희권사가 재활용주머니 50개를 직접 만들어 기증해주었다. 윤화자권사는 기증품을 내는 대신 10만원의 찬조금으로 내었다.

한빛에서는 신난숙교우가 기증한 이불과 조명자집사가 기증한 가방을 판매하였다. 한샘에서는 주방기구와, 건어물, 간장, 고추장과 정용연교우가 기증한 울금을 판매하였고, 한길에서는 옷을 판매하였다. 한사랑에서는 음료수와 케익, 가방, 구두, 아동용품을 판매하였다.

이날 총 판매액은 2,819,500원이고, 이 금액은 전액 몽골선교와 미얀마 선교를 위해 쓰여진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92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5명 추대

제92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서울강남지역에서 목사 4명, 장로 1명이 추대됐다. 후보자 추대는 올해 후보자 추천 지역인 서울강남지역의 노회가 지난 8일 마무리되면서 윤곽이 들어났다. 각 노회에서 추대된 후보자는 서울강동노회에서 추천된 임종우 장로(송파교회, 1975년 11월 23일 장로임직), 서울동남노회에서 추천받은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1976년 11월 6일 목사임직), 영등포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김동엽 목사(목민교회, 1979년 12월 8일 목사임직), 서울강동노회에서 추천된 이승영 목사(새벽교회, 1981년 4월 14일 목사임직), 서울강남노회에서 추천된 강병만 목사(청담교회, 1981년 5월 15일 목사임직) <임직순> 등 5명이다.

이번 후보자 추천은 서울강동노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했으며, 1991년 총회에서 한영제 장로가 장로로서 부총회장에 입후보 한 이후 16 년만에 처음으로 장로가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됐다. 임종우 장로는 서울장신 성서과 졸업과 장신대 부설 평대원을 수료했으며, 서울강동노회 부노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만나별풀 상사를 경영하며 한국장로신문 이사, 하와이 한인기독교TV방송국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삼환 목사는 장신대 신대원과 아세아연신대를 졸업하고, 서울동남노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회 도서의료선교위원장, 한남대학교 이사장, 총회 세계선교부장, 외향선교회 총재, 기독교교도소 아가페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동엽 목사는 명지대학교와 서울장신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영등포노회 노회장과 총회회록서기, 총회 서기, 한일장신대 이사장, 방파선교회 회장, 몽골올란바타르 대학교 이사장, 목사합창단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승영 목사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서울강동노회 노회장을 비롯해 영남신학대학교 이사, 총회 사이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연세대 재단이사과 경찰선교후원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병만 목사는 연세대 신학대학교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서울강남노회 노회장과 총회 공천위원회 위원장, 총회 회의록서기, 한국기독교공보 이사를 거쳐 한아봉사회 이사와 총회 파송 CBS 재단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각 노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총회 개회 60일전에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정식으로 부총회장 후보로 활동할 수 있다

농아인 선교 61주년 기념 행사

총회 농아인선교회(회장:손원재)가 창립 6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함께 전국수화 찬양제를 지난 13일 신일교회에서 가졌다. 서울노회 신일교회(이광선 목사 시무) 농아부 창립 23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열린 이날 감사예배는 손원재 목사의 사회로 진행 신일교회 농아부의 수화 찬양에 이어 최기준 목사(신일교회 협동목사)가 '보여주세요'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이날 예배에서는 먼저 열린 찬양제에서 1등을 수상한 대구농아인 교회 아가페팀이 공연했다.

이날 찬양제에는 전국 농아인 교회와 교회 농아인부에서 10개 팀이 참가했으며, 1등에는 대구농아인 교회 아가페가 차지했으며, 2등은 명성교회 농아부, 3등에는 서울교회 에바다부가 입상했다. 예배와 찬양제에는 농아인 2백여 명을 비롯해 5백여 명이 참석해 교회가 농아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노회 수의 거쳐 공포된 헌법 개정

본 교단 총회가 새로 개정된 헌법을 사용하게 됐다. 지난 3년간 끌어왔던 총회 헌법개정안이 제91회 총회 석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후에 전국 노회수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된 것. 이에 따라 총회장 이광선 목사는 지난 15일 전국 노회 수의과정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노회 과반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 정치와 권징의 모든 조항이 가결됐음을 전격 공포했다. 또한 이번 노회 수의과정에서 함께 가결된 사도신경은 제92회 총회에서 공포할 예정이다.

전국 노회수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63개 노회 가운데 제주노회와 보고를 보류한 인천동노회를 제외한 61개 노회가 헌법개정안 전체에 찬성했으며 함께 노회수의 과정을 거친 사도신경은 집계된 61개 노회 중에서 56개 노회가 찬성하고 5개 노회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표수 1만2천1백12표 중에서 정치와 권징은 전부 과반수 찬성을 얻었고 사도신경의 경우에는 찬성 1만7백34표, 반대 1천2백5표로 집계됐다.

물론 2백80여 조에 이르는 헌법 정치와 권징 중에서 노회별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진 노회도 있다. 권징 1백24조(재심)와 정치 65조(당회의 폐지), 정치 90조 3항 4호(공동의회), 정치 17조 2항(교인의 이명), 정치 28조(목사의 청빙), 정치 74조 2항(노회원 자격), 권징 62조(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63조(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64조(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이유통지) 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백22조(위탁재판청원의 처리) 등 8개 노회가 각 조항에 따라 부결시킨 바 있다.

이번 헌법개정안의 시행 공포는 각 노회에서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 이를 종합한 결과를 즉시 공포 실시하도록 돼 있는 총회 헌법 개정 제1백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헌법 조항에 한해서는 3년 이내에 개정할 수 없다. 특히 이번에 개정 공포된 헌법은 현실에 맞게 조항을 개정해 놓았으며 또한 권징 부분은 전면적인 개정으로 기존의 틀을 바꾸고 재판할 때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헌법조례의 내용을 가능한 한 헌법에 삽입해 놓고 있다. 우선, 개정 헌법 정치편에 교회 설립 폐지를 기존의 20인에서 15인으로 대폭 낮춤으로써 오늘날 교인감소 현상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기존에 향존직을 70세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에 단서 조항으로 조기 은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당회 폐지 조항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최근 교회가 당면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장로 선택시 복수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단수 추천도 가능하도록 했고 피택장로의 교양교육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으며 서리집사 임명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 가능한 한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부분들도 있다.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무흠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조례에 있던 부분을 헌법 안에 삽입한 조항도 있다. 목사 청빙시 공동의회 출석세례교인 과반수 결의로 가능했던 부분을 공동의회 출석세례교인 과반수의 서명 날인한 명단을 첨부하도록 했으며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구성도 반드시 노회 본회의에서 하도록 헌법조례에 있던 내용을 삽입했다. 목사 청빙에 대한 승인도 노회와 임원회 정치부 등의 허락을 받도록 구체적인 순서를 정해 놓고 있다.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한 부분도 있다.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때는 반드시 제직회와 당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헌법에는 제직회를 제외하고 당회만 거치도록 간소화했다. 여기에 인권적인 부분을 강화한 부분도 있다. 권고사임 때, 반드시 본인의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사직이 안 되도록 명시해 놓았다. 개정 헌법에는 또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상회 지시가 있을 때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있다. 요즘 종종 발생하는 교회 재산 문제와 관련, 교회에는 반드시 부동산 대장을 비치하도록 해 사전에 교회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놓았다.

여성목회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본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총회 결의로 통과

된지 올해로 12년째가 된다. 1933년 제22회 총회에서 여장본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총회 결의로 통과된 후 청원을 한 이후 61년이 지난 1994년 제79회 총회에서 찬성 7백1표, 반대 6백12표, 기권 8표로 여성안수 헌의안이 가결됐다.

12년이 지난 오늘은 어떠한가. 여성 목사를 비롯한 여성 교역자에 대한 냉담한 반응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교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가부장적 정서는 여성 교역자가 양무리의 리더가 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특히 목회 현장에서도 여성 교역자에게 심방과 상담 등 특화된 목회 영역만을 요구하고 있다. 목회 영역마저 성별화 돼 담임목회 사역과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사역들과 관련된 교육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총회 훈련원(원장:박중순, 운영위원장:손대호)이 여성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목회계획 수립을 위한 목사(교역자) 계속교육을 실시해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3~25일 부산 해운대 소정교회 기독교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 훈련과정(GLTC)'을 주제로 훈련원 전문위원들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해 진행됐다. 전국여교역자연합회(회장:이상출) 연례모임을 겸해 세미나에 참석한 50여 명의 여교역자들은 평신도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목회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예배와 설교, 성만찬, 코이노니아, 선교와 상담과 행정 등 목회 전반에 필요한 전문성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회행정(신영균목사)을 시작으로 3일간에 걸쳐 △영성수련과 하나님 체험(김락현목사) △원리목회를 통한 건강교회 만들기(이일호목사) △문화유적과 함께 하는 예수님 이야기(박용우목사) △예배학교(채영남목사) △사이버 구역 사역자 양성 과정(송태승목사) △새신자 정착을 위한 지도자 과정(장현운목사) 등이 마련됐다.

여교역자들에게는 영성을 새롭게 다지고 목회사역의 다양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의 여교역자 교육은 특수한 목회 분야에 국한돼 목회 전반이 아닌 부분적으로 이뤄져왔고, 이번처럼 여러 개의 패러다임을 정해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경우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교육이 있다해도 교회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여성 부교역자들을 보내지 않고 있고, 노회 차원의 협조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이번 참석자 거의 모두가 담임 목회를 하는 이들이었다.

여교역자연 김은미사무총장은 "현재 총회 차원에서 여교역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없다"며 "성별을 떠나 목회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들이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훈련원 이일호원장은 "여성 교역자들이 훈련 내용을 지교회에서 그대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성 교역자에 대한 계속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교역자연은 자유토론을 통해 자체 훈련 강화라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회 내에서도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10여 년간 자체 교육이 없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목사고시, 1천6백50여 명 응시

미래 목회자를 선발하는 목사고시가 지난 5월 24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설교와 논문(술), 성경 교회사 헌법 등의 필기과목과 면접 등 구술고사가 이어진 이날 고시에는 모두 1천6백50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자는 8월중 총회(www.pck.or.kr)와 본보(www.kidokongbo.com)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발표될 예정이다. 통상 목사고시 합격자를 매년 9월 교단 총회에서 고시위원회가 보고를 한 뒤 발표를 해 왔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응시생들을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돼 이번엔 발표 일정을 앞당겼다. 한편 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목사고시 발표 개선안'은 현재 진행 중이며, 결정이 되는대로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동서교회의 아름다운 미래 동행

동서고금(東西古今)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all ages and countries; all times and places'라고 표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상황을 이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란 표현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본보와 한시미션, 기독교방송, 기독교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는 '동서동행'과 '미래'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동과 서, 과거와 현재가 통하는 것 즉, '통(通)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의 주강사 레너드 스윗 박사는 동서동행에 대해 "하나님은 교회에 서양과 동양이라는 두 개의 폐를 주셨다. 그러나 지난 5백년 동안 특별히 서구 중심의 교회는 서양이라는 한 쪽의 폐만 갖고 호흡을 해왔다. 그리고 교회는 마침내 이제 동양의 폐를 발견하고 있다.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동양적 뿌리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동양적 뿌리에서 영적 직관과 영적 상상력의 역할을 발견하고 있다. 이는 교회가 회합적인 생각 속에 히브리적인 사고를 결합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서양적인 기독교가 '계약'에 기반을 세울 때 동양적인 기독교는 '관계'에 기초를 세웠다. 우리가 오랫동안 쪽

폐로만 숨 쉬어 온 기독교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두 쪽의 폐로 숨을 쉬어야 할 때가 왔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보라, 동양이다. 바로 동양에 기독교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과거의 위계적 질서는 다양성이라는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머리와 가슴, 이성과 감정, 동양과 서양, 목회자와 성도,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통해야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상을 말씀으로 통하게 하고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분수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서교회가 통합으로 미래교회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21세기 세계 교회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니"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은 무엇일까? 하이패밀리(대표:송길원), 행복한가정연구소(소장:김병훈), 한국가정상담연구소(소장:추부길) 등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항목을 '행복한 가정만들기'의 공통적 계명으로 꼽고 있다.

△입술의 30초 가슴에 30년

부부 사이의 대화는 필수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일방적인 목소리만 높인다면 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은 무너지기 일쑤다. 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의 행복을 가꾼다."고 강조했다. 또한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칭찬으로 신바람 나는 가정을 만들자.

△고치는 배필보다 돕는 배필

남녀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부부로 연을 맺기까지는 보통 20~3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생활방식, 취미, 습관, 약점 등이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라고 충고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결점이나 단점은 고치려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남과 비교하는 태도도 절대 지양하자. 배우자는 고치는 배필이 아닌 돕는 배필이다.

△함께 여가를 즐겨라

전문가들은 목표가 없는 결혼생활은 '결혼한 독신녀, 독신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로를 지지하며 치유하고 상호 성장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

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함께 여가시간을 갖고 공동의 취미를 즐기는 것도 서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여가시간을 이용해 가족끼리 주말농장을 찾는다거나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자.

△기도로 하루를 열라

행복한가정연구소 김병훈 목사는 “결혼 설계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복이라는 선물은 기도로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 부부·자녀간의 기도시간을 갖자. 또 가족끼리 공동기도문을 작성하고 1주일에 한번 가정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터키서 사역 중인 독일 선교사 참수, "경악"

터키에서 사역 중이던 독일인 틸만 선교사가 현지인 동역자 2명과 함께 잔인하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요르단대학교 공일주 교수(본교단 파송 선교사)는 최근 메일을 통해 이 비극적인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다. 터키의 지르베 출판사에서 독일어와 터키어 번역을 하며 성경과 기독교 관련 소책자를 배포해 왔던 틸만선교사는 지난 4월 18일, 자신의 사무실에 침입한 다섯 명의 괴한들에게 손발이 결박당한 채 온몸에 1백50여 군데 자상을 입고 참수 당해 사망했다. 이날 틸만 선교사와 함께 있던 네자티 씨와 우르 씨도 현장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들은 갓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로 기독교인 사역자들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이슬람 교도들을 개종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이후 틸만선교사의 부인인 수잔나선교사와 세 자녀는 터키 ATV에 출연해 범인들을 용서해 잔잔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방송에서 수잔나 선교사는 “내 남편은 아무 의미 없이 죽지 않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일이 터키와 말라티야를 위해 분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했다. 이어 수잔나선교사는 “나는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용서한다.”고 덧붙였다.

[독자제언]"비방은해결책이 아니다"

김한수/ 샘솟는교회 목사

얼마 전 우연히 알게된 모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읽어보니 우리나라 교회들의 문제와 다름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었다. 물론 다른 도움이 되는 기사들이나 교계 소식들도 실리기는 하지만, 이 신문의 주요 기사 중 상당부분이 교회

의 부끄러운 모습을 담고 있었다. 물론 '한국교회의 개혁'이라는 대의가 있지만 나는 '과연 이 신문의 활약으로 그렇게 될까?'라고 반문해 본다.

복수는 복수를 낳듯이, 비방은 비방을 낳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비방을 양산한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교역자들의 모습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왜 그것이 기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또 그러한 기사가 올라오면 그 뒤에 붙게되는 각종 댓글들로 인해 또 다른 욕설이나 비방 그리고 제2, 제3의 부끄러움이 줄을 잇는다. 모두가 서로 서로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것이다. 왜 이래야 하는가? 과연 그러한 행위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까?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땅이 있는 한, 그곳이 교회라해도, 부끄러움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뿐이지, 남의 소식을 즐겨듣고, 인용하고, 비판하는 것이 결코 우리 모두를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 나는 우리 교단만이라도 이러한 인터넷상의 비판을 경계했으면 한다. 비판만을 위한 비판의 진흙탕에 빠지지 말았으면 한다. 아무리 고고한 사람이라도 진흙탕에 들어가면 똑같아진다. 나 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뒤에는 우리들 공동체가 있고, 한국 교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많은 것이 교회요, 사람이요, 세상인데, 왜 부정적인 내용,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 서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게 하고 있는가? 아무리 인터넷이라 하여도 교회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걸었으면 그곳에서 말하는 방식이나 세태를 평가하는 모습,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 교회의 비리나 개혁에 대한 언론의 목소리 못지않게 표현방식이나 성도다움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충고가 필요한 때다.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복존우물기

2007년 6월호 · 통권 제172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박 병 옥

편집인 : (교회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안중혁

발행일 : 2007년 6월 2일